



☞ 시간과 장소 및 공간과 관련된 작업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작업에서는 어떤 주제를 탐구해왔는가?

2019년까지 '결핍'과 '부재'를 작업의 키워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이주의 경험과 문화적 전치나 이방인으로서 겪게 되는 감각 및 경험을 여러 매체로 실험해왔다. 개인의 상태를 외부 사물이나 비인간 동물에게 투영하는 방법론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로써 그 존재를 투과하는 시선을 경유해 개인의 현실과 심리상태를 은유적으로 발화하는 양상으로 작업해왔다. 특히 내부의 관점과 외부의 관점의 충돌하는 상황, 다시 말해 개인적인 삶의 의미와 외부의 객관적인 시점에서의 의미가 부딪힐 때 개인이 감당하게 되는 무의미함을 고찰해왔다.

☞ <3년의 합>은 «Fingers crossed»(2021, 아웃사이트)에서 선보인 <For the fist bump>를 변형한 작업이다. 두 작업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듣고 싶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3년의 합>은 <For the fist bump>의 연작으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여겨지는 것 또는 당연한 것을 탐구한 작업이다. '오른손'을 중심으로 신체 부위가 기능하는 기본적인 방식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상태에 집중했다. <For the Fist Bump>는 주먹이 마주치는 형태에 유념한 작업이었다. 걸의 덩어리는 주먹을 지탱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물로 작용했었다. 반면 <3년의 합>에서는 주먹이

놓인 구조뿐만 아니라 주먹 오브제가 돌출되는 부분에도 새로운 언어를 부여하고자 했다. 이를 '덩어리'라고 일컫고 싶은데, 단순히 주먹 오브제를 위해 존재하는 딱딱하고 의미 없는 구조물이 아니라 또 다른 유기체로 다루고자 했다. 주먹 오브제가 마주하는 형상과 '클렌칭(clenching)'이라는 개념을 담고자 색감과 형태 그리고 크기에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다.

☞ 'clenching'에 대한 탐구로 확장된 계기는 무엇인가? <3년의 합>이라는 새로운 제목을 부여하게 된 배경도 이와 관련이 있나?

신체 중에서 자주 사용해 익숙한 '손'을 거쳐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특별하게 생각하게 됐다. <3년의 합>에는 손의 행위 중 클렌칭 개념을 구현하고자 했다. 클렌칭은 힘과 관련된 손의 기능들, 예컨대 이빨을 꼭 깨물거나 악력을 써서 물건을 쥐는 행동들을 지칭한다. 아기가 힘의 조절을 하지 못할 때 주먹을 꼭 쥐다 폼다 하는 모습을 클렌칭이라고도 한다.

클렌칭과 '힘'을 결부해보면, 손에 쥐어지는 물건에 따라 손에 들어가는 힘도 각기 달라진다. 우리는 점차 이 힘을 반사적이고 경험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정상적이고 평범히 여겨지는 기본적인 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3년의 합>을 통해 기본적인 것이 불가능한 물리적인 상태를 제시하기보다, 너무나 당연해서 생각지 못한 신체의 기능과 그 행위가 갖는 의미들을 시각화해 보통의 상태에 의문을 가지고 기존과는 다르게 인식하고자 했다.

<For the Fist Bump>라는 제목을 통해 '주먹이 마주치기 위한'이라는 의미를 강조했었다. 이와 달리 <3년의 합>에서는 주먹만을 말하기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3년의 합'이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을 부여했다. '3년의 합'은 개인적인 서사와 관련된 제목이지만 관객들은 최근 3년을 지칭하는지 혹은 각기 다른 3명의 주먹을 뜻하는지 등 제목에 자유롭게 접근해 보길 바란다.

☞ '클렌칭'이라는 개념이 작업에 칫솔이나 과일 등의 사물을 쥐고 있는 형태로 구현됐다. 일상과 밀접한 사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주먹이 서로 마주치려는 구조와 긴장감에서 나아가 무언가를 쥐 때 손에 가해지는 힘이나 쥐어지는 물건에 따라 변화하는 의미를 포착하고자 했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가 작동하는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각기 다른 기능과 의미를 들여다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도 마찬가지로. 덩어리들에 포함된 주먹들은 3가지 과일이나 칫솔 등 일상의 사물을 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사물을 쥐는 행위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다. 과일처럼 물렁하고 연약한 사물부터 칫솔처럼 생활에 밀접한 사물을 쥐는 손에는 어느 정도로 다른 힘이 들어갈지 떠올려보길 바란다. 이외에도 덩어리들 하단에는 바닥을 짚는 손과 남성의 발로 추정되는 오브제가 배치돼 있다. 넘어질 때 한 손으로 땅을 짚는 상황과 발로 무언가를 밀거나 잡고 있는 상태를 연상하도록 제작했다. 누군가의 신체, 무엇을 받치거나 다치지 않기 위해 지탱하는 손과 민첩하고 절박하게 밀고 있는 발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는 주먹을 쥐는 두 가지 상황에 주목했다. 우리는 타인과 싸울 때 주먹을 쥐기도 하지만 친근감을 표하고자 가볍게 주먹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이처럼 동일한 형상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함축하는 양가성은 전시 전체를 꿰뚫는 주제다. 이 양가성은 비남성적인 존재들이 사랑을 경험할 때 갖는 감정과 우리의 현실적인 정체성이 지닌 모호함으로도 읽을 수 있다고 봤다. 여러 사람의 주먹을 교차시키며 고려한 점이 무엇인가?

설치 작업의 스케일과 커짐과 함께 관객은 고개를 들어 높이 나와 있는 주먹들을 바라보게 된다. 주먹과 주먹 간의 긴장감과 높이 올려다보게 만듦으로써 주먹들의 상태와 의미를 더 강조했다. 주먹을 쥐는 행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우리는 싸우기 직전의 상태에서 주먹을 쥐기도 하고 반대로 인사를 나누거나 화합하는 상황에서도 주먹을 쥘다. 그리고 그 주먹들이 서로 마주치지 않고, 마주치기 위한 상태로 나타날 때 어떠한 상황인지 추측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주먹 오브제들을 지탱하는 덩어리들에 새로운 형상을 추가하여 관객이 몇몇의 다른 신체 행위들을 발견하거나 상상하도록 했다. 사실 이 작업은 가족 구성원과 그 구성원 간의 지지, 응원, 염원, 합에서 시작됐다. 주먹 오브제는 가족들의 손을 본떠서 제작한 것으로, 성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비교적 어린 여성의 주먹으로 구성됐다. 주먹 오브제를 보며 가족만을 떠올리기보다 다양한 위치에 놓여있는 개개인의 손이라고 해석하며 감상해도 좋겠다.

 최근 대안적 신체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후 작업의 향방이 궁금하다.

영국에서 발표한 지난 작업들은 공간의 구조 및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사물들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감각적 환기를 이끌어내는 시도에 가까웠다. 이후부터는 작업 전면에 본격적으로 물성이 드러나도록 제작했다. 공간과 장소성을 내면화하는 태도보다 공간 안에서 부피감과 존재감을 차지하며 무언가를 발언하려는 태도에 가까워졌다고 본다. 신체의 물질적 상태만 고려하는 게 아니므로 작업의 키워드를 ‘대안적 신체’라고 한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신체에서 촉발되는 감정과 심리 상태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무력감과 좌절감이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기대하는 심리 등 신체 그 자체보다 주변적인 관계나 연결감에서 작업의 단초를 발견하고 있다. 변형된 신체의 물질성 자체보다는, 훼손된 신체가 변형된 기능을 담지한다는 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인간에 의해 훼손된 생태계나 물리적 한계 및 장애로 인해 보통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현재 ‘발과 날개’라는 신작을 구상 중이다. 뭉개진 발로 아스팔트를 걸어 다니는 비둘기들을 탐색하며 현실 속 훼손된 존재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가고 싶다.



인터뷰: 손익현





